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9.18~2026.09.23

구분	시장 동향
Energy	● 호주, 주(州)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30년 목표 불투명' (2026.09.19, The Guardian) 호주 주(州)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50%에 도달. '30년 82%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풍력 8.5GW와 태양광 9.5GW 건설이 필요. 그러나 필요한 설비 중 실제 공사 중인 물량은 약 12%에 그치는 상황
	● 미국 에너지부, 차세대 지열 프로젝트 21곳에 최대 \$99M 지원 (2026.09.21, Reuters) 미 에너지부는 차세대 지열시스템 실증 5건과 탐사 시추 16건 등 총 21개 프로젝트에 최대 \$99M를 지원하며 지열 자원 개발을 확대. 지열에너지는 최근 미국 전력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부상
Government	● EU, 데이터센터 지속가능성 등급·라벨 의무화 추진 (2026.09.22, ESG Today) EU 집행위는 500kW 이상 모든 역내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전력·용수 효율, 에너지원 구성, 전력망 유연성 기여도를 A~G 등급으로 표시하는 규정을 발표. 첫 라벨은 2027년 8월 게시 예정
	● 프랑스, EU에 메탄 규제 시행 1년 연기 촉구 (2026.09.22, Reuters)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EU 집행위에 석유·가스 수입품의 메탄 배출 측정·보고·검증 의무 시행 시점을 '27년 1월에서 '28년으로 1년 연기 요청. 연료 공급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메탄 규제가 수입업체에 법적 리스크를 줄 수 있다는 입장
Corporations	● ORCL, AI 데이터센터용 1.7GW 풍력 전력 계약 체결 (2026.09.18, ESG News) Oracle은 Clearway·ENGIE·RWE 등과 텍사스 풍력 10개 프로젝트 계약을 맺어 애빌린 AI 데이터센터가 연결된 텍사스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 이는 '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전력을 100% 무탄소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일환
	● GOOG, 스페인 친환경 제철소 지원 (2026.09.18, ESG News) Google은 스웨덴 북부에 건설될 예정인 Stegra의 친환경 제철소를 지원하며, 초기 철강 생산분 일부에 연계된 환경속성인증서(EAC)를 확보할 예정. Google은 계약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기대
Funds	● 네덜란드 BpfBouw, €70B 규모 위탁운용사로 BlackRock 우선 선정 (2026.09.18, Bloomberg) 네덜란드 연기금 BpfBouw는 약 €70B 규모 자산의 통합위탁 운용 우선협상대상자로 BlackRock을 선정. 선정 사유로 글로벌 규모와 실행 역량 외에 ESG 데이터·분석 역량을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부합성을 제시. 이에 기후단체 Follow This는 BlackRock의 기후 관련 주주제안 지지율이 낮다며 bpfBOUW의 2026 기후전환계획과 상충한다 비판
	● 나이지리아 NSIA, \$300M 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펀드 출범 (2026.09.21, Reuters) 나이지리아 연기금 NSIA는 공공·민간자본을 결합한 \$300M 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펀드를 출범해 오프그리드·분산형 전력 프로젝트 투자에 착수. 세계은행도 IDA를 통해 \$2.5M를 지원했으며, '30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약 3억 명에게 전력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 필리핀 GSIS, 연금수급자 대상 태양광 설치 대출 개시 (2026.09.23, Manila Bulletin) 필리핀 연기금 GSIS는 9월 30일부터 연금수급자에게 옥상 태양광 설치 자금을 최대 50만 페소까지 연 5% 고정금리, 최장 5년 조건으로 대출 개시. 이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Ginhawa for All' 패키지의 일환. 연기금이 가입자 복지 상품에 녹색금융을 접목해 가계 단위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사례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